

전웅태·서창완 “베르사유 궁전에 태극기 휘날릴 것”

근대5종

2024 파리 올림픽 광주·전남 태극전사 <5>

내달 8일 펜싱 랭킹 라운드 시작 세계선수권·월드컵 동반 청신호 전 “동메달 넘어 역사 달성할 것” 서 “메달리스트로 역사에 기록을”

한국 근대5종의 쌍두마차 광주시청 전웅태(28)와 국군체육부대 서창완(27)이 나란히 2024 파리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이번 올림픽 근대5종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펼쳐지는 만큼 프랑스의 심장에서 함께 태극기를 휘날리겠다는 각오다.

전웅태는 “다른 말은 필요 없다”며 “아시안게임 때 이야기했던 ‘될 놈은 된다’를 이번 올림픽에서도 믿고 가겠다. 우리 근대5종 대표팀 전체가 될 놈들이 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창완 역시 “올림픽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무대이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다”며 “항상 꿈꿔왔던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로 남고 싶다”고 다짐했다.

올림픽은 단체전과 계주 없이 오로지 남·여 개인전으로만 열리지만 이들은 유력한 메달리스트로 꼽힌다. 전웅태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근대5종 역사상 첫 메달리스트가 됐고,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했다. 서창완은 지난 4월 월드컵 2차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웅태는 “리우데자네이루와 도쿄대회에 이어 세 번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어

떻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결국 노력만이 답이다. 노력과 메달 색깔은 비례하기 때문에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창완도 “항상 꿈꿔왔던 올림픽에 출전하게 돼 영광이다”면서도 “이왕 도전하는 김에 출전에 의미를 두지 않고 꼭 메달을 따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 첫 번째 올림픽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재밌게, 배짱 있게 즐겨보겠다”고 밝혔다.

전웅태와 서창완은 나란히 시상대에서 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국군체육부대에서 훈련 중인 근대5종 국가대표팀은 오는 29일 프랑스로 떠나 폰텐블로 팀코리아 파리 플라퐁에서 현지 적응을 마친 뒤 다음 달 4일 파리 선수촌에 입촌한다.

전웅태는 “전반기에는 올림픽에서 함께 땀 외국 선수들을 많이 분석했고 후반기에는 페이스를 올리려고 했다”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많은 운동량을 잘 버텨왔다”고 자신했다.

서창완도 “훈련은 평상시와 똑같은 양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님, 코치님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감독님, 코치님을 믿고 착실히 훈련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새벽부터 열심히 훈련하는 만큼 기량이 늘고 자신감이 붙었다”고 강조했다.

근대5종의 가장 큰 변수는 승마다.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타게 될 말을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운도 따라

줘야 하는 종목이다. 승마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장애물 경기로 대체돼 다음 대회부터는 볼 수 없다.

전웅태는 “근대5종에 승마가 있는 마지막 올림픽이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싶다”며 “프랑스의 상징적인 장소 중 한 곳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것도 영광이다. 근대5종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서창완도 “올해 승마에서 성적이 아쉬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배정받아도 기수가 잘못 타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모두 스타일에 맞는 말이 배정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들은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에 대해서도 미리 기분 좋은 상상을 꺼냈다. 전웅태는 두 가지 세리머니를 미리 약속했고, 서창완은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펼쳐지는 벽찬 순간을 떠올렸다.

전웅태는 “레슬링의 김현우 선수가 메달을 딴 뒤 관중석의 응원단에게 큰 절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다. 좋은 성적을 내면 저도 꼭 절을 올리고 싶다”며 “시상대에서면 육상의 이상혁, 스포츠클라이밍의 천종원과 이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W를 손으로 표현하는 세리머니를 약속했다”고 예고했다.

서창완은 “올해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보기도 해서 이번 올림픽 메달이 더 욕심이 난다”며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 경기를 마치는 순간에는 꼭 시상대에 올라 손을 흔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한국 근대5종 국가대표팀 전웅태(오른쪽)와 서창완이 지난달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2024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메달 시상에 성공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스



제1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에 참가하는 중국 선수단이 25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광주서 열린다

25~31일 초중생 160명 참가 탁구·농구 등 3개 종목 열전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2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제1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가 이날부터 31일까지 7일간 광주시체육회관 등 3곳의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류대회에는 한국과 중국의 초·중학생 160명이 참가한다.

한국 선수단은 경신중, 문화중, 광주체육중 등 광주지역 13개 초·중학교의 80명으로 구성됐다. 중국은 충칭시의 초·중학

교에서 80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교류대회는 탁구·농구·배드민턴 등 3개 종목으로 펼쳐진다. 중국선수단이 입국한 25일 다음날인 26일과 27일 합동훈련, 28일 연습경기, 29일 공식경기 등으로 진행된다.

경기 장소는 광주시체육회관(배드민턴), 상무국민체육센터(농구), 동림다목적체육관(탁구) 등이다.

교류전 참가 선수단은 공식경기 후 빛고을체육관에서 친교의 시간을 보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30일에는 광주김치타운에서 직접 만든 김치를 광주소재 소외계층 단체 등에 기증할 계

획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미래의 주역들이 양국의 청소년들이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스포츠를 통해 꿈과 우정을 키우길 바란다”며 “충칭에서 온 선수단이 광주의 매력을 느끼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는 지난 2006년 ANOC 총회를 계기로 2008년 양국 체육회장 간 교류이행 합의 체결을 거쳐 추진됐다. 양국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청소년 스포츠 발전을 기하고 국가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유대 강화를 위해 2008년 제주를 시작으로 국가별로 진행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고흥군청 태권도팀, 한국실업최강전 종합 우승

6체급 출전 금 2·동 2개 획득

전남도 최초 태권도 실업팀인 고흥군청 태권도팀이 창단 3개월만에 2024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겨루기)에서 남자부 개인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5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지난 21~23일 제주 공천포전 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 개인전 8체급 중 6체급에 출전,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경학이 남자부 -87kg급 결승에서 강민우(수원시청)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고, 하선우가 -58kg급 결승에서 김세운(국군체육부대)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63kg급의 이의현과 -80kg급의 김근형은 준결승서 석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했다.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지난 4월 전남도 최초로 창단한 태권도 실업팀으로 창단 3개월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서며 신생팀 돌풍을 일으켰다. 최동환 기자

순천제일고 배구,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 우승

순천제일고등학교 배구부가 ‘제57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순천제일고는 지난 24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결승에서 현일고를 세트 스코어 3-0(25-21 25-23 25-12)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준결승서 진주동명고를 3-0(25-13 25-16 25-18)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순천제일고는 예선에서 패배를 안겼던 현일고를 다시 만나 설욕했다.

1세트를 25-21로, 2세트도 25-23으로 이기며 기선을 제압한 순천제일고는 3세트마저 25-12로 가져오며 완벽한 승리를 일궜다.

이로써 순천제일고는 2012년 우승 이

후 12년 만에 이 대회 우승을 되찾았고, 올시즌 2차례 3위와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순천제일고는 개인상도 휩쓸었다. 김남중 감독이 지도자상을, 이세현(3년)이 최우수선수상을, 배준솔(3년)이 세터상을, 임태호(3년)가 공격상을, 김혜성(3년)이 리베로상을 각각 수상했다.

순천팔마중 배구부는 남중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순천팔마중은 결승에서 남성중과 3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25-23 21-25 9-15)로 역전패했다. 순천팔마중 강경민(3년)은 우수상을, 김강비(3년)가 우수공격상을, 정운송(3년)이 블로킹상을 각각 받았다. 최동환 기자